炎天驅步 例年보다 빨리온 무더위

「성난 여름」

空軍氣象部서 올여름날씨診斷

最高38度 雨量적고 暴暑爆發

한두個의 颱風·暴風찾아올듯

장마는 늦어 7月初에

29일 공군중앙기상부는 6월하순께 매년되풀이되던 장마(長霖)가 올해는 늦어져 7월초순늦게나 시작될것이라고 밝혔다。 7월초순께의 비도 제구실을 할만한 강우량이 못될것이며 8월에접어들어 태풍이 비를몰아와 예년만큼의 비가 내릴것이라고 발표했다。

▲8月=예년보다 조금 높으나 연극고기온(年極高氣溫)은 예년보다 늦게 중순중에 나타나 분지및 전방지구에서는 38도를넘는 극고기온이 예상된다。

예년보다 빨리온 더위는 7월중순부터는 본격화되어 일부지방은 37도까지 예상되며 8월늦게 최고기온을 나타낼것이라고 장기기상을예보했다。 중앙기상부의 7、8월 기상예보는 다음과같다。

◇氣 象

으레 6월20일 전후해서 있던 장마철이 6월말현재까지 접어들지 못했고 장마를 가져올 한랭다습한「오스크」고기압이 이제 발달을 엿보이고 있어 남부지방에는 7월5·6일께、중부지방은 10일이지나 장마가 시작되나 이장마전선은 활성(活性)을 못띠어 빨리북상、중순말께 끝날것같다。 8월말까지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받아 무더운날이 계속되고 대류운(對流雲)에의한 소나기가 빈번할것이며 1、2개의 태풍또는 열대성 폭풍우가 있을것이다。

◇降雨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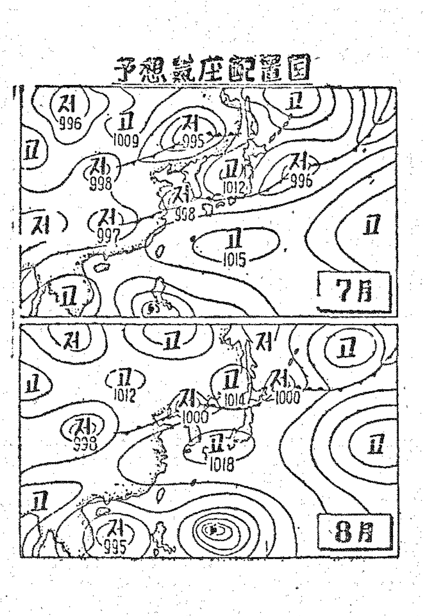
▲7月=장마전선이 활성을못띠어 북상이 빠를것이며 전국적으로 예년의150~350「밀리」보다 50~100「밀리」가 적은 100~250「밀리」가량 내린다。

▲8月=남해안을 통과한태풍 또는 빈번한 소나기로 중부지방은 예년과 비슷한 200~250「밀리」남해안、남부및 동해안 지방은 예년보다 조금 많이 200~250「밀리」가 내린다。

◇氣 溫

▲7月=중순까지는 다소 낮으나 장마가 끝나 중순 이후부터는 높아지며 분지(盆地)의 전방지구는 36~37도의 폭서가 예상된다。

予想氣壓配置図



「韓國蹴球」五輪出戰確定

綜合戰績5對2로 越南制壓

28일하오4시15분(韓國時間下午5時15分) 월남「사이공」시「리퍼블릭·스타디움」에서 3만여 축구「팬」이 운집한가운데 거행된「도오꾜·올림픽」출전「아시아」지역A조 최종축구예선 한국대 월남의 제2차전에서 한국「팀」은 2대2로 비겨 1、2차전을통한「골·애버레이지」(得失點計算)에 있어 월남「팀」을누르고「도오꾜·올림픽」에 출전할자격을 얻었다。한국「팀」은 지난5월30일서울에서 거행된 제1차전에서 월남「팀」을3대0으로 물리친바있다。 이로써 2차전을 통한「토탈·스코어」는 5대2로된다。

이날 섭씨33도라는 무더운날씨와 소나기로「그라운드·컨디션」이 나쁜데도불구하고 한국「팀」은 끝까지 선전、월남「팀」의 줄기찬 공격을 최소한 두점으로 막아냈다。 월남「팀」의「킥·오프」로 시작된 이날대전에서 한국「팀」은 전반6분30초 RI李相樹의「센터·링」한 공을 우측45도 각도에서 RW李二雨가 강「슛」한것이 성공、선취점을 올렸고、27분 RW李二雨가 중거리「슛」하여 1점을 추가「게임」의 주도권을 잡았다。

北傀도

한편 28일밤「버마」「랭군」에서 거행된「아시아」지역B조 최종예선에서 북한대 태국의 제2차전에서 북한「팀」이 5대0으로 태국「팀」을제압、「도오꾜·올림픽」출전자격을 얻음으로써「도오꾜·올림픽」축구경기에 출전할 16개세계각국 대표「팀」이 모두 결정되었다。 북한「팀」은 지난 6월20일에 거행된 제1차전에서도 2대0으로 태국「팀」에 이겼었다。

「도오꾜·올림픽」축구경기는 이16개국「팀」이 오는 8월30일 瑞西「로잔느」에서의 추첨에의하여「토너멘트」로 거행되는데 추첨여하에따라 남북한「팀」이대전하게 될지도모른다。〈外信綜合〉

◇16個國이對戰

「도오꾜·올림픽」축구출전「팀」

▲無豫選出戰國=「유고슬라비아」(前로마大會優勝國) 日本(主催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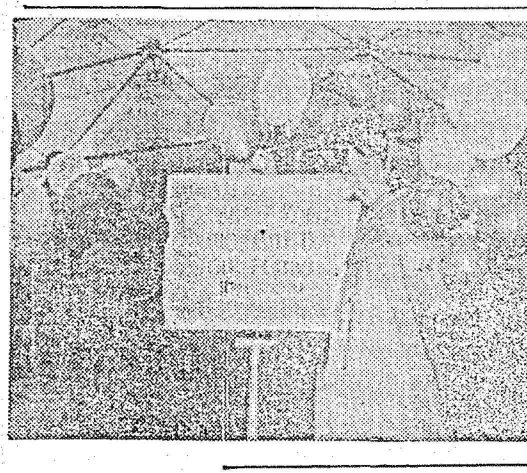
▲亞細亞地區(代表3個國參加17個國)=韓國 北傀「이란」

▲「아프리카」地區(代表3個國參加12個國)=統一「아랍」共和國「리베리아」「가나」

▲歐羅巴地區(代表5個國參加21個國)=「루마니아」洪牙利 獨逸 伊太利「체코슬로바키아」

▲南美地區(代表2個國參加6個國)=「아르헨티나」「브라질」

▲北·中美및「카리브」沿岸地區(代表1個國參加5個國)=「멕시코」



◇「뉴욕」世界博覽會韓國館「호스테스」송선영(23)孃이 28日 韓國의날을 記念하여 띄워올린 風船들에 싸여 서있다。【29日發UPI電送=東洋】

韓國의날記念行事 「뉴욕」世博서盛了

【뉴욕28日發UPI=東洋】이곳 세계박람회의 한국관에서는 28일 다채로운 민속축제로「한국의날」기념행사가벌어져 각국귀빈및 박람회관람자다수참관리에 대성황을 이루었다。

겨레의가슴에 메아리쳐…

拉北人士送還위한「百萬人署名運動」

淑大등各界서呼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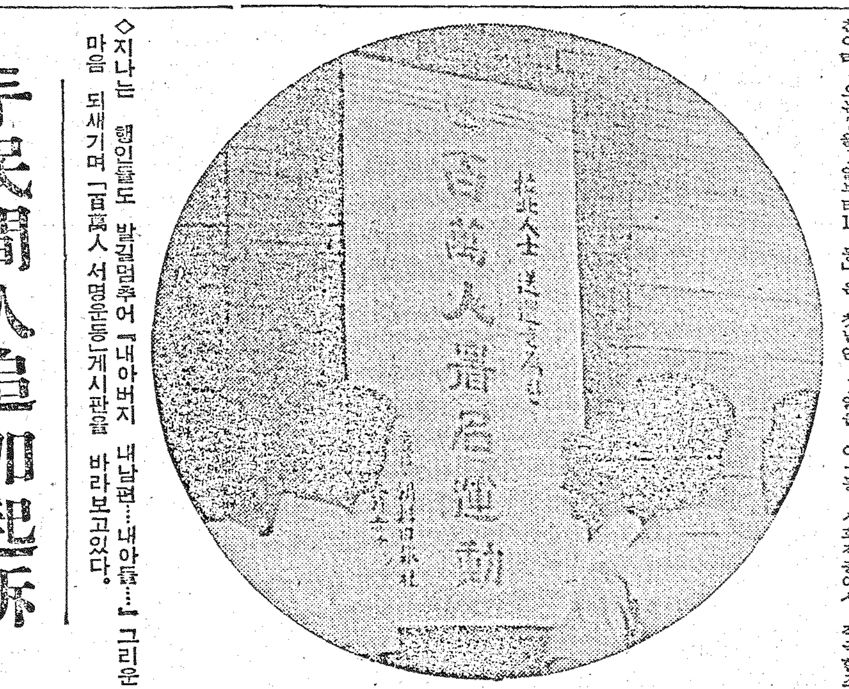
내일부터 市內13個所에서 활약

6·25열네돌을맞아 조선일보사가 대한적십자사의협찬아래 오는7월1일부터10일까지 벌이는「납북인사송환을위한 백만인서명운동」은 첫날인 1일을 이틀앞둔 29일 숙명여자대학교학생회와 북한해방통일촉진회등 사회각층에서 적극협조하겠다는뜻을 전해왔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본사가마련한 서울시내각「로타리」13개처에 매일2명씩 동원、26명이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 동서명운동의 전위가될것을 약속했다。

한편 북한해방통일촉진회(회장=金弘壹씨)는『귀사에서 일대용단을내려「납북인사송환을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인것은 민족적거사로서 여기에 우리도 우리의 충의를모아 이운동에 협조할것을 다짐한다』는 격려문을 보내왔다。

이날 세계대학봉사회한국위원회와「곳씨회」에서도협조의뜻을 본사에 전해왔다。



◇지나는 행인들도 발길멈추어「내아버지 내남편…내아들…」그리운 마음 되새기며「百萬人서명운동」게시판을 바라보고있다。

두民間人追加起訴

「法院」亂入事件公判 오늘續開

6관구계엄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공수단장교 법원난입사건에관련된 민간인 유국준(劉國俊=31)김상목(金相睦=31)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폭수협박、특수주거침입)위반혐의로 29일상오 추가기소했다。 이들 민간인 2명을포함한 법원、「동아」난입 두사건의 공판은 30일상오에열린다。

光化門電話線추첨 競爭率은10·6대1

서울광화문전화국호출부호74국 1천회선의 가입공개추첨이 29일하오1시부터 세종로광화문우체국에서 있었다。 공공성을띤 각기관에 우선권을준 이번 일반추첨은 10·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犯人은그집主婦

內需洞投石事件5個月만에解決

서울내수동(內需洞)투석사건은 지금까지 피해자로 알려졌던 내수동13 정정자(鄭貞子=35)씨가 28일 종로서의 용의자로 다섯달만에 검거됨으로써 사건수사에 매듭을 지었다。 평소 낭비벽이있는 정씨는 남편모르게 10만원의빚이있어 그빚을 한목에 정리하기위해 집을팔려고했으나 남편이반대、도깨비집이라는 연극을꾸며 집을기어코 팔려고한것이 자백에의해 판명되었다。 29일 정씨는 즉결심판에 돌려졌다。

遺族이칼로찔러

桃洞壓死사건 慰藉料싸고 主人에 덤벼한名負傷

29일밤9시쯤 앞서 시내도동에서 발생한 건물도괴압사사건의 유가족 황이준(17)등 2명이 건물주인 최춘자(崔春子=仁寺洞22의3)씨집에 깨진맥주병과식도를들고 침입、최씨의 아들 신대준(申大俊=18)군의 머리를 찔러 부상을 입힌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날 즉각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위자료를 둘러싸고 최씨집에 흉기를들고 네차례나와서 협박한사실이 있다고한다。

29일현재 압사자에대한 위자료는 지급되지않았다。

高大生13名첫軍裁

裁判管轄權재정까지 公判을無期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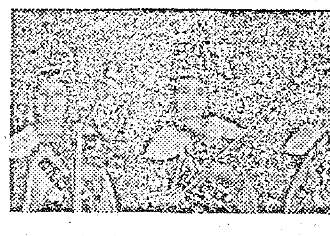
고려대학생13명에대한내란및 소요(騷擾)피의사건의 군재 첫공판이29일상오 수도경비사 계엄 보통군법회의(裁判長 李賢發中領·法務士官 黃仁喆·檢察官 李辭九中尉)법정에서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세경(朴世經)변호인은 이사건은「계엄선포전의 일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않는다」라는이유를들어 재판관할권재정신청을 대법원에내기로 결정、이날공판은공소장낭독과 인정신문만으로 끝내고 공판을 무기연기했다。

검찰측은 형법제87조2항및3항이적용된 이들학생들은 지난1일밤 현정부를타도하기 위해「구국투쟁위원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고 다음날인 2일상오10시 이를실행키위해 약2천명의학생을 집합시켜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나온 13명의 학생명단은 다음과같다。

▲李炳瑢(22=法科4)▲孫玉吉(24=政外科4)▲金聖吉(23=法科4)▲金光銖(23=農化學科3)▲金南與(22=農化學科3)▲李隆(21=林學科2)▲金斗煥(24=政學科4)▲林秀光(22=物理學科3)▲李乙任(22=物理學科3)▲丁海南(20=政外科2)▲徐五錫(23=商學科3)▲李周烈(21=商學科3)▲李忠南(21=政外科3)



◇右로부터眞·善·美제양들

「미스코리어」誕生

眞엔辛정현孃

금년도 세계미인대회에 우리나라대표로 참가할「미스·코리어」진·선·미의 세미인이 28일 경복궁에서열린 선발대회에서 최종적으로결정되었다。영예의 진에는 신정현(辛姃炫=21)、선에 이혜진(李瑡眞=20)、미에 윤미희(尹美姬=23)양이 각각당선되었는데 진·선은모두서울출신이며 미는「미스·한국전력」이다。

◇「準미스코리어」

▲眞=文順子 ▲善=崔孝子

▲美=李蓉貞 ◇「미스·한국일보」

▲眞=崔貞貞

釜山에 毒나방

6百名이皮膚病에걸려

【釜山支社】부산시내에 독나방이번져 29일 정오현재 5、6백명(경찰추산)의피해환자가 발생하는등 피해를 입고있다。 2、3일전부터 몇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한 이독나방은 28일밤9시쯤 갑자기 부전동 공설시장일대를 비롯하여 부산진등을 휩쓸어 60내지70명의 상인들이 삽시간에 피해를입어 한때 철시하는등 소동을벌였다。

艦艇그리기大會 入賞어린이施賞

어제海軍本部서

해군본부가열고、조선일보사가 후원한「해군함정그리기대회」에 입선한 어린이들에대한 시상식이 29일하오 해군본부광장에서 있었다。

특등에서 가작까지 입선한 90여명의 어린이들은 상타는맛에 더위도잊은듯 학부형과함께 시종기쁨을참지못하는듯했다。 특등한 정현채(덕수교3의1)군은 유난히 두툼한상품을 이(李)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받았으며、단체상 1등의 구신국민교는 91함의 모형을받고 모두환호성을 올렸다。

한편 이날 진해(鎭海)에서도 시상식이 성대히거행되었다。

◇특상받은 정군과 李해군참모총장

巡警이溺死

少年救해주고

인파20여만명이 몰려 8명이 익사한 휴일의한강에서수색(水色)파출소근무 천후봉(千後鳳=25)순경은 상암동(上岩洞)샛강의 위험한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고있는 10여명의 소년들을 안전한 곳으로보낸후 나오다가 소용돌이에 휘말려익사했다。

商工部에抗議

迎日油田 가스是非

地質研究所걸어 告訴할氣勢 推進委서

【迎日에서 本社特派員崔順福發】영일유전개발추진위원회는 영일유전에서 가연성「가스」가 분출되고있다는것을 재확인하고『영일유전의「가스」분출은조작』이라고발표한 상공부에 정식으로항의、경우에따라서는 명예훼손죄로 지질연구소관계자들걸어 고소를 제기할 기세를 보이고있어「가스」시비는 앞으로 더욱거칠어질것같다。

영일유전추진위원회가 이와같은결정을 내리게된것은 지난28일 대구종로국민학교에서소집한 영일유전추진위원회전국지부대의원대회(대의원73명중 63명참석)에서 선출된 유전시추장「가스」분출확인조사단의 조사결과에의한것이다。

「세종의날」글짓기

入賞者를發表

29일 문교부는「세종의날」글짓기대회에서의 입상자명단을 다음과같이 발표했다。 이글짓기는 지난5월15일 전국 각초·중·고교별로 시행된후 문교부에제출된 4천2백83편중 입상자를뽑은것이다。

◇高校

▲1등=이대호(天安農高3년)

▲2등=임상태(木浦工高3년)

▲김덕이(麗水農高2년)

◇中學

▲1등=백광식(대전중3년)

▲2등=이재남(南仁川女中3년)강용근(한밭중3년)

▲3등=김수애(東萊女中3년)이종학(光州東成中3년)황금연(서울師大附中1년)

◇國民校

▲1등=강미자(大邱東仁國6년)

▲2등=안은경(江景산양國6년)권명자(始興관양國5년)

▲3등=이영숙(水原소화國6년)도정숙(大邱西部國5년)박기종(慶南매산國4년)

全警察力動員

暴力輩등掃蕩

治安局7月을治安確立의달設定

치안국은 사회질서 확립을위해 7월한달동안을 사회질서확립의 달로설정、전경찰력을 총동원하여 폭력배와 도범소탕을 하기로했다。 이기간동안에 치안국에는 총지휘본부를두고각시·도경찰국에는 지휘본부를두어 폭력배도범소탕을 하되 지역별 책임제와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치안국은 이기간동안에 성과를올린경찰관은 그성적을 앞으로 인사면에도 반영시키기로했는데 다만업무수행중옥석을구분하여 인권에침해가 없도록하라고아울러 지시했다。

敎聯代議員大會

7月3日大邱서

대한교육연합회는 교원의처우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해 오는3일 대구상업고등학교에서 전국임시대의원회를 연다。

전국 10만회원을 대표한 4백6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하게될 이대회에서는 초·중·고교교원에 대한연구수당(2천원)지급등처우개선문제와 위기에처한의무교육타개방안、교육자치제육성강화책등이 논의될것이다。

5日에補修除幕式

스미스部隊戰勝碑

6·25때「유엔」군으로서 처음으로 공산군과대전、치열한싸움끝에 승리를 거둔 미제24사단「스미스」부대의 전적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7월5일하오3시부터 오산(烏山)북방의 옛싸움터에서 거행된다。 이날 전승비의 보수제막식도 있을것이라한다。

文化財管理局長등

3名을拘束起訴

慶州林野拂下事件

【慶州】속보=경주에 있는「문화재관리국임야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경주지청은 29일 문화재관리국장 정문순(鄭文淳=40)관리과장 구본석(具本錫=40)관재계장 김정희(金班熙=46)등3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1월14일 경주시암곡리(岩谷里)에있는 문화재관리국소유 4백정보의 임야에서 입목2백12만6천여재를 불하함에 있어싯가 재당4원6전(은행감정가격)을 그반액인 2원30전씩에 팔아、도합3백만3천86원의 국고손실을가져오게 한혐의를받고있다。

11名이死亡

西部日本에暴雨

【東京27日發AFP=合同】서부일본에 쏟아진 폭우때문에 1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26일과 27일 폭우가 쏟아진 이지역에서는 약63동의 가옥이 파괴되고 수개소의 철도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폭우때문에 수천동의 가옥이 침수되었다。

同和通信이優勝

言論人바둑大會

28일 신문회관주최 제3회 언론인바둑대회전적은 다음과같다。

▲1位=同和通信社▲2位=한국일보▲3位=東亞日報

모집

▲韓國演劇硏究所附設演劇「아카데미」演技科研究科第1期生卒業式=30일(火)상오11시南山「드라마·센터」에서

▲서울合唱團新入團員募集=7월4일까지마감。원서교부는 忠武路入口首都「피아노社」(⑧3818)

날씨 (30日)

해뜨는시각=5시14분

해지는시각=7시57분

▲中部=남동풍、흐린날씨에 때때로맑겠으나 곳에따라 소나기(서울최고31도~최저26도)

▲湖南=남동풍、대체로 흐린날씨에 곳에따라 해안에는비

▲嶺南=북동풍、흐린날씨에 가끔맑겠으나 해안은 한때비

▲嶺東=남동풍、맑은날씨에 가끔흐림

▲濟州=남동풍、대체로흐린날씨에가끔비

자고가는저구름아 (939)

朴鍾和

金世鍾 畵

아아 불쌍타 왜 태어났더냐 (40)

신임 강화유수정항은 신연(新延)맞이해서 올라온 육방관속의 문안을 받은후에 사은숙배한 당일로 내려가고 원임기협은 봉명한 선전관한테 삭탈관직을 당한후에 함거(檻車)에실려 금부로 잡혀왔다。

나라에서는 추관(推官)을 이이첨으로 임명 시켰다。

이이첨은 대군을 보호했다는일로 죄목을 삼을수는 없었다。

왕명을 받들어 내려간 금부도사의 자유를 빼앗아객사에 감금시켰다는 것으로 죄를 엮었다。

『죄인 기협은 잘 들거라。너는 무슨 생각으로 망중 왕명을 받들어·내려간 금부도사를 십여일씩이나 객사에 감금시켜서 꼼짝을 못하게 했더냐。이실직고하렸다。만약에 사실이라면、왕사(王使)를 감금했으니 반역에해당된다。참형에처하리라。』

엄하게 매질하여 문초한다。

기협은 벌써、소인 이이첨의 내심을 잡안고있었다。 서인으로 몰기위하여 이따위짓을하는줄 판연히 알았다。이런 까닭에 기협은 미리 방비하는수단을 썼던것이다。

기협은 추관 이이첨을향하여 껄껄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언제、금부도사를 감금해서 자유를 뺏았더란 말씀요。옆에서 본사람들이 수십명살아있소。증인을 불러 물어보시오。 금부도사 홍요검은 내가 감금한 것이 아니라、자기자신이 기생한테 빠져서 탐닉(耽溺)이 된까닭에 십여일 동안이나 흐리전곤 속에 유련을하고있었소。홍요검이 머리를 얹어준 계향이란 기생이 아직도 만동 말동 강화에 관기(官妓)로거행을 하고있고、그때 심부름했던 이、호、례、병、형、공 육방 관속들이 다들었으니 모두를 불러 물어 보시오。』

미리、단수 높게 방어선을 친 기협은 숨김 없이 금부도사 홍요검의 기생오입한 죄상을 다 털어놓는다。

이이첨은 아무리 간특한 소인이라하나 깜짝놀랐다。 곧、강화로 사람을 내려보내서 사실을 조사케했다。

옥사는 한달을 끌었다。

결국 강화에서는 행수기생과 계향이 올라오고、이방、호방이 증인으로 불렸다。 금부도사 홍요검도 대질문초를 당했다。

의금부、옥마당은 강화기 계향의 출두로 한마당 풍경치가 벌어졌다。

『네가 금부도사 홍요검한테 머리를 얹었느냐』

계향이 부끄러운듯、얼굴을붉혀 대답한다。

『그러하옵니다。홍도사는 삼일신방을 치러모신、소비의 첫서방이옵시다。여기 예물로받은 물건들이 있읍니다。』

계향이는 예물로 받은 옥비녀와 금반지며 은가락지를 꺼아올렸다。

이이첨은 지환과 비녀를 받아들고 홍요검에게 묻는다。

『기생 오입을하고 네어찌 소리를 했느냐。』

홍요검은 입이 열이라도 대답할말이없다。고개를 푹숙인다。

기협이 사슬에 [illegible] 부자유한 몸으로 홍요검을 크게꾸짖는다。

『네이놈、나한테는 배은망덕을하고、나라에는 기군망상(欺君罔上)을하는 놈이다。』

호령이 추상 같았다。

아무리 소인 이이첨이지만、기협을 죽일수없었다。

기협은 무죄백방을 시켜 시골로 보내고、홍요검은 금부도사의 벼슬을 떼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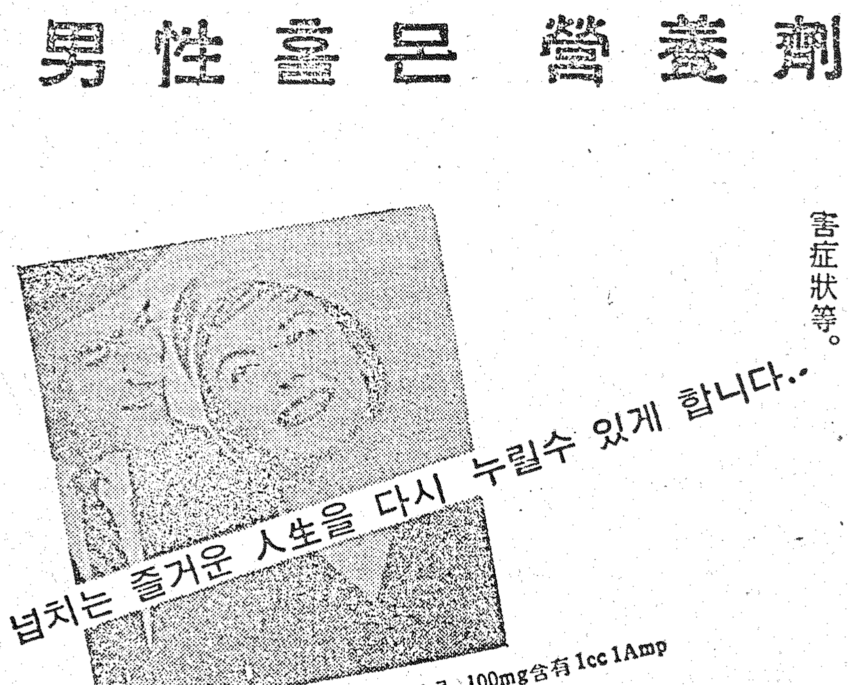
訃音

▲李徹씨(合同通信編輯記者)28日下午7時30分 서울大學附屬病院서 別世 永訣式30日上午11時 서울大學附屬病院安置所 葬地·水原[illegible]

▲金哲珠씨(前文敎部次官)28日 下午8時40分 서울新堂洞357의 11號自宅에서 發靷30日上午10時

新発売!

男性홀몬 營養剤


精力이 넘치는 즐거운 人生을 다시 누릴수 있게 합니다..

〈닷드·뎁포의 特長〉

□單一回의 注射로 約一個月間 精力을 均等하게 持續한다。

□肉體的·精神的充力感을 自覺할수 있다。

□青·壯年層의 性的障碍와 更年期의 性慾減退를 回復한다。

□特히 夏節疲勞로 因한 無氣力 또는 活動力減退를 回復한다。

〈特히 이런분에게!〉

精力不足。活動力의 減退。性器發育不全。精液의 過少。性腺機能減退。早漏症。更年期諸害症狀等。

〔包裝〕 싸이크로 펜칠 푸로피오네드 테스토스테론 100mg含有 1cc 1Amp

單1回注射로 1個月間 持續 濃縮男性홀몬劑

닷드뎁포

製造元 伊太利 DOTT·BONAPACE 會社

販売元 第一藥品産業株式会社

連續放送劇

聞慶새재

<DBS東亞放送 밤9時30分 낮2時>

웃음을 파는것이 女子의 宿命인가…

여기한 老妓와 그一家의 崎嶇한 삶의 哀歡이 엮어진다…

朱泰益 作 · 朴東根 演出

韓國最初의 連續放送唱劇이 우리나라 放送劇界의 巨匠 朱泰益先生 畢生의心血을 기우린執筆과 또한 演出界의 泰斗인 朴東根演出로 7月1日부터 製作放送됩니다。

特別贊助出演

(音樂擔當)李단소 (唱)國唱金素姬·박동진

第一藥品産業株式會社 提供